

영암군, 체류형 관광도시로 지역 판 바꾼다

여행상품 개발·생태문화 인프라 확충…체험·미식 완성
우승희 군수 “맞춤형 정책 추진…지역경제 활력에 도움”

영암군이 2026년 체류 관광도시로 지역 관광과 경제의 판을 바꾸는 큰 걸음을 내딛는다.

일시적 여행에서 관광객이 머무르며 소비하고, 다시 찾는 관광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7억원 지역상권 매출로 효과를 입증한 ‘영암여행 1+1’ 확대, 주말마다 새로운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 개최, 생태·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확충, 체험하는 관광지 콘텐츠 혁신, 미식으로 완성하는 체류 관광 등 의 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관광객의 지역 여행을 재방문, 골목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소비 연계 관광 인센티브 사업 ‘영암여행 1+1’을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했다.

5개월 시범 운영해 1만4000여명 관광객이 7억원 이상의 지역 소비를 창출했다. 잘 설계된 관광정책이 관광객의 머무름과 소비를 견인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영암군은 올해부터 영암여행 1+1을 확대 추진한다.



이 밖에도 왕인박사유적지는 전용 이미지(CI) 개발과 굿즈 제작, 스템프 투어 운영 등 브랜드 관광지로 육성. 지난해 ‘천상 영암멋집’ 유치에 이어 올해 월출산 천황사입구에 장어덮밥집 개점 등 미식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관광은 이제 단순히 보고 돌아가는 관광 아니라, 머물고 경험하며 다시 찾는 관광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2026년을 기점으로 축제 연결, 인프라·공간 재생, 미식 관광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력과 골목상권 매출 대표 산림휴양 거점으로 육성한다.

영암트로트아카데미도 교육·기술 복

합시설로 견립 중이다. 기찬랜드는 여름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성수기 이전 대대적 시설 정비로 안전성 포조 시설을 갖춰 기찬맛길과 연결하고 ·편의성을 강화한다. 이미 개장한 대동 대표 산림휴양 거점으로 육성된다.

영암트로트아카데미도 교육·기술 복

합시설로 견립 중이다. 기찬랜드는 여름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

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gwangnam.co.kr

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